**프롤로그 – 0**

(검은 화면이 나오며 중앙에 서서히 표시된다)

“이 게임에 언급되거나 묘사된 역사적 사실이나   
인물 그 밖에 일체의 명칭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 
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”

**프롤로그 – 1 (등장인물: 주인공, 병사A, 병사B)**

(양쪽에 병사들이 호위하며 주인공을 길을 따라 세자궁(동궁 속 자선당)으로 데려가며)

주인공: 세간에 세자가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사실인 모양이군…  
주인공: 이런 (미천한) 나까지 궁에 들이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은데.  
주인공: 아무쪼록 어떤 일이든 괜찮으셔야 할 텐데

**프롤로그 – 2 (등장인물: 주인공, 병사A, 병사B, 왕, 세자)**

(자선당 앞에 다다른 주인공은 밖에서 대기하는 병사들을 지나 자선당 안으로 들어간다.)  
(자선당 안에서 주인공은 자신을 기다리던 왕과 마주한다.)  
(주인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말한다.)

주인공: 전하 어떠한 일로 미천한 저를 궁까지 부르셨습니까?

(초조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왕이 말한다.)

왕: 우리 세자가 아주 아픈데 유명하다는 어의들을 다 데려와 봐도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어 혹시나 세간에서 용하다던 귀공이라면 이를 알 수도 있을까 하여 부르게 되었네.

주인공: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인이 감히 세자저하의 옥체를 손댈 수 있겠사옵니까..

왕: 세자의 상태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귀공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부디 한번 부탁하네.

(주인공은 조금 생각한 뒤 왕에게 말한다.)

주인공: 음.. 일단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..

(주인공은 왕과 함께 세자의 방으로 들어간다.)

**프롤로그 – 3 (등장인물: 주인공, 왕, 세자)**

(방에 들어서서 주인공은 세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한다)  
(세자의 상태를 보고 주인공은 왕에게 말한다.)

주인공: 세자의 상태를 보니 이것은 아마 신병인 것 같습니다.

왕: 신병? 어찌 우리 세자에게 그런 것이 생겼느냐

주인공: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당장 누름 굿을 하지 않으면 세자저하가 위험 하옵니다.

(왕은 내키지 않아 잠시 고민을 한 뒤 주인공에게 부탁을 한다.)

왕: 내키지는 않지만 세자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… 부디 부탁하네

(주인공은 왕의 말을 듣고 누름 굿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.)

주인공: 그럼 누름 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주인공은 누워있는 세자에게 누름 굿을 한다)

(세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.)

주인공: (기운이 심상치 않은데…)

**프롤로그 – 4 (등장인물: 주인공, 세자)**

(누름 굿을 시도하고 있는 세자에 몸에 갑자기 어둠의 기운이 들어오며 주변으로 악의 파동이 뻗어 나간다.)  
(파동이 전체적인 맵(스테이지)들을 지나가며 파동이 지나간 자리는 어두워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바뀐다.)

**프롤로그 – 5 (등장인물: 주인공, 세자, 왕)**

(어둠의 기운의 힘으로 인하여 세자는 괜찮아 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주인공은 자신이 누름 굿을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된다.)  
(주인공은 자신을 추스르며 말한다.)

주인공: 후… 내림 굿으로 인하여 잡신이 없어졌으니 세자저하는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.

(마음을 다잡고 기뻐하는 듯이 왕이 말한다.)

왕: 뭐 그게 정말인가? 정말 고맙네....  
왕: 내가 귀공의 공을 잊지 않고 보답으로 꼭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네.

(주인공은 별일 아닌 듯이 웃으며 말한다.)

주인공: 뭐 저 같은 것이 세자저하를 도울 수 있어서 황송합니다.

(왕이 서두르면 말한다.)

왕: 우선 궁 내의 상태가 말이 아니니 상태가 조금 진정된 뒤에 귀공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네…

(왕에게 보상을 약속 받은 주인공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.)

**프롤로그 – 6 (등장인물: 주인공)**

(홀 가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주인공은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목격하게 된다.

주인공: 어?!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 
주인공: 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잖아!  
주인공: 저기는 우리 집이 있는 쪽인데 혹시 모르니 서둘러야겠다.

(주인공은 서둘러서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.)

**프롤로그 – 7 (등장인물: 주인공, 자객)**

(자신의 집에 다 달은 주인공은 타고 있는 집을 본다.)

주인공: 어!.. 우리 집이!!!  
주인공: 안돼!! ㅠㅠ

(자신의 집으로 달려가는 주인공에게 갑자기 나타난 자객이 칼을 박는다.)

주인공: 억! 어으으…  
주인공: 넌…… 누구ㄴㅑ……

(가슴에 칼이 박힌 주인공은 처절하게 앞으로 쓰러진다.)

자객: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…

(주인공이 쓰러지며 하늘에서는 서서히 비가 내리며 점점 시야가 어두워진다.)

**프롤로그 – 8 (등장인물: 주인공, 자객)**

(주인공이 죽은 걸 확인 한 자객은 인적이 드문 외진 산에 주인공을 던져 두고 유유히 사라진다.)

**프롤로그 – 9 (등장인물: NULL)**

(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려주듯이 계절이나 낮 밤이 바뀌며)  
(검은색 화면에 천천히 글씨가 나타난 뒤 사라진다.)

“5년 뒤”

**프롤로그 – 10 (등장인물: 주인공)**

(땅에서 손 하나가 뻗어 나오며 주인공이 땅을 파해 치며 올라온다.)